



2019

포용적 노동시장·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

# 고용노동부 6대 중점 과제



고용노동부

# ① 취업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

✓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이 찾아갑니다.

-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 ('18년 19.2조 → '19년 23.4조)
- 취약계층 혜택 확대 (참여비율: '17년 36.3% → '19년 42%)

✓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,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(1,083억원)
- 청년·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·협업

✓ 조선업, 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극복에 정부가 함께 합니다.

- 산업별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제언
-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



## ②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

### ✓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 삶과 일터가 변합니다.

- 주 최대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집중 지원
  - \*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: '18년 209억 → '19년 347억
- 특례제외업종 적용 대비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, 모니터링 및 지원

### ✓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됩니다.

- ILO 등 국제기준 고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
-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선 추진

### ✓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듭니다.

-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
  -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 : '18년 13만원 → '19년 15만원
  - 취약계층까지 지원대상 확대 : 60세 이상,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등
-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
  - '18년 200만명 → '19년 237만명 (예상)



# ③ 차별 없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

## ☑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을 근절하겠습니다.
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·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
- 성차별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지도·감독 강화, 구제절차 마련
-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

## ☑ 정규직 전환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고용불안에서 해방됩니다.

-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
-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
- 채용비리 근절

## ☑ 배달, 특고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,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가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.

- 법의 보호대상 확대,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 추진
- 특고, 자영업 1인사업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
-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 (3개소→7개소)



## ④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

- ☑ 사회적 대화에 청년·여성·비정규직 등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됩니다.
  - 청년·여성·비정규직·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
  -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논의
  -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확산
- ☑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기준을 추진합니다.
  - (결사의 자유 협약)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노사 논의 지속
  - (강제노동 금지 협약) 법 개정 필요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절차 진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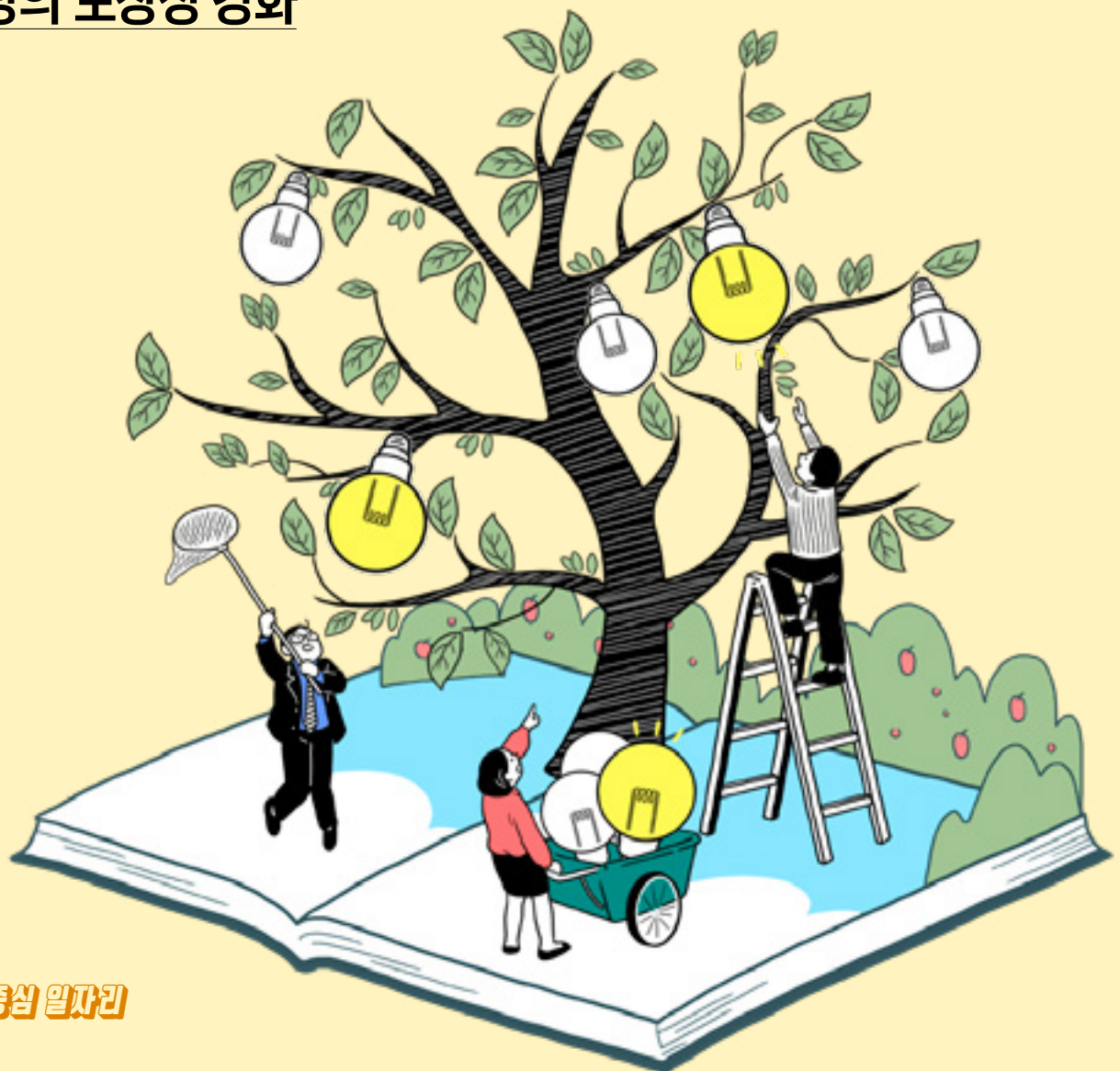
# ⑤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강화

✓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, 고용·복지 연계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.

- ‘취업중심 패키지 센터’ 시범운영 및 ‘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’ 마련
-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표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

✓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확대되고(+30일), 특고·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
- 근로빈곤층 대상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도입 추진
- 고용안전망의 보장성 강화



# ⑥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

✓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신기술분야 훈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

- 폴리텍 특화 캠퍼스 지정운영
-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
  - (폴리텍) '하이테크 과정' 확대('18년 545→'19년 775명)
  - (민간기관) '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' 확대('18년 700→'19년 1,300명)
-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·비정규직 노동자와 45세미만 대기업 저임금 노동자에게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

✓ 실무역량을 평가 중심의 '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'을 확산하겠습니다.
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마련 → 직업훈련 혁신방안 '19년 1분기 중 발표



포용적 노동시장, 사람중심 일자리